

호랑이 1위 굳히기... 초심으로 돌아가라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초심으로 1위 지키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3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7패로 지면서 올 시즌 처음 루징 시리즈(1승2패)를 기록했다.

개막 후 이어진 6연승 위닝 시리즈는 중단됐지만 지난 14일 1440일 만에 단독 1위에 올라선 이후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수원과 잠실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을 소화한 KIA는 이번 주 안방에서 1위 수성을 놓고 홈 6연전을 치른다. 상대는 2017 개막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 라이온즈와 ‘천적’ NC 다이노스다.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잡고 초심으로 시작해야 하는 한 주다.

삼성과의 부담 많은 리턴매치다. KIA는 개막 시리즈에서 삼성에 2승1패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 행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출혈이 컸던 승리와 패배였다.

개막전에서 멀티 홈런으로 나홀로 5타점을 올렸던 나지완과 든직한 헛타를 앞세워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던 KIA는 개막 두 번째 경기였던 지난 1일 9회초까

안방서 꼴찌 삼성·1.5게임차 ‘천적’ NC와 첫 격돌

둔해진 중심타선... 불안한 불펜에 아쉬운 피로감 상승

이범호 이어 김진우 복귀 임박... 전력 재정비 기회로

지 7-0의 느긋한 리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1승을 앞두고 9회말 불펜 대란이 발생했다.

김광수를 시작으로 고효준 그리고 한승혁과 임창용까지 투입됐지만 9회 7실점이라는 치명적인 기록이 남았다. 연장 10회 승부 끝에 9-7로 이겼지만 상처 많은 승리였다. 2일에는 선발 김윤동과 두 번째 투수 홍건희의 난조로 3-16 대패를 당했다.

‘이닝 7실점’으로 시작부터 꼬인 불펜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불펜은 확실한 보지 없이 매 경기 총력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위 팀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실상 가장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알 수 없는 긴장감 가득한 경기가 계속되면서 야수진의 피로도 쌓이고 있다.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에서는 펄펄 날던 김선빈과 안치홍이 각각 공격과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는 바로 결과로 이어졌다.

김광수와 김진우의 슬럼프 속에 나지

완의 움직임도 둔해지면서 중심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선발진의 부담은 가중되면서 자칫하면 루징 시리즈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최하위 삼성과의 승부리는 점도 오히려 부담이다. KIA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삼성은 다시 만나기까지 3승(2무1패)밖에 수확하지 못하면 0.16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선두 KIA 입장에서는 삼성전 패배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주말에는 NC와의 시즌 첫 만남이 기다린다. 지난 2년 KIA는 NC 타선에 고전하며 12승 20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테임즈가 빠진 올 시즌 초반 걸음이 더뎠던 NC는 지난주 특유의 폭발력을 보여주며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타선은 최근 6경기에서 41점을 만들었고, 팀 평균자책점은 2.59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불펜의 최근 6경기 평균자책점은 1.52로 뒷심 부족의 KIA와 대비된다. 투·타의 조화로 6

■ 2017KBO리그 순위 (4월24일 현재)

순위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KIA	14	0	6	0.700	0.0	1패
2	NC	12	1	7	0.632	1.5	6승
3	LG	11	0	9	0.550	3.0	1승
3	SK	11	0	9	0.550	3.0	1패
3	kt	11	0	9	0.550	3.0	1패
6	롯데	10	0	10	0.500	4.0	1패
7	두산	9	1	10	0.474	4.5	1승
8	한화	9	0	11	0.450	5.0	1승
9	넥센	8	0	12	0.400	6.0	1승
10	삼성	3	2	15	0.167	10.0	4패

연승까지 내달린 NC는 2위로 도약, KIA를 1.5게임 차 밖에서 쫓고 있다.

한승혁과 임창용의 반전이 필요한 KIA 마운드에 새 전력이 가세한다. 시범경기 첫 등판을 앞두고 열구리 염좌로 이탈했던 김진우가 1군에 합류해 복귀전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타선에서는 돌아온 이범호의 활약이 필요하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3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이범호는 지난 23일 잠실에 다시 모습을 보였다. 25일 삼성전에 맞춰 풀업될 예정이었지만 3루를 지키던 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이범호가 지난 23일 LG와의 경기를 통해 1군에 복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주형의 부진이 극에 달하면서 날짜를 앞당겨 돌아왔다. 이범호의 복귀전 성적은 4타수 무안타 1삼진.

위망급을 끝내고 타선 재점화를 이끌어야 하는 이범호와 선발진 완성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김진우다. 새 전력을 더한 KIA가 안방에서 1위 독주를 이어갈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T&T파크션 피홈런 안 된다

류현진 투수 친화구장서 선발 장타 허용 땀 재기 장담 못해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 친화적인 AT&T파크 마운드에서 시즌 첫 승에 다시 도전한다.

앞선 3경기에서 홈런에 무너지며 패전의 멍에를 썼던 류현진이 이 구장에서 서머 장타를 허용한다면 재기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류현진은 25일 오전 11시 15분(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017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4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했다. 개인 최다 연속 피홈런이다. 바로 전 등판이던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는 홈런 세 방을 내줬다. 메이저리그 입성 후 개인 한 경기 최다 피홈런이다.

2013년 30경기에서 15홈런을 맞은 류현진은 2014년에는 26경기에서 피홈런 수를 8개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는 3경기에서 벌써 6홈런을 맞았다. 내셔널리그 피홈런 공동 3위다.

갑작스러운 피홈런 증가는 ‘구위 저하’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25일 샌프란시스코전 피홈런 억제에 중요하다. 샌프란시스코 팀 홈런 최하위다. 류현진도 샌프란시스코와 9차례 맞대결에서 단 2홈런만 내줬다.

우측 외야 뒤의 매킨비만에서 바닷바람이 부는 AT&T파크는 올해 경기당 홈런 0.34개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홈런이 적게 나온 구장이다. 류현진은 그동안 AT&T 파크에서 2홈런만 허용했다.

고비마다 홈런포에 무너졌던 류현진이 투수친화 구장인 AT&T 파크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부활의 신호탄을 터뜨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12전 13기 대역전승 ‘키예프의 기적’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4일 오전(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팰리스 오브 스포츠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2부리그)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에 역전승을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강호’ 카자흐스탄을 격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남 아이스 하키, 막판 4골

카자흐스탄에 5-2 역전승

2연승... 1부리그 승격 눈앞

오늘 밤 헝가리와 3차전

‘키예프의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쾌거였다.

백지선(50·미국명 짐 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24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팰리스 오브 스포츠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2부리그)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에 5-2(1-1 0-1 4-0) 역전승을 거뒀다.

세계 랭킹 23위의 한국은 이번 대회 최강으로 꼽히는 카자흐스탄(16위)을 ‘12전 13기’ 끝에 처음으로 꺾고 폴란드전(4-2승)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꿈의 무대’인 월드컵 피어십(1부리그) 승격을 바라보게 됐다.

한국은 1995년 아시안컵에서의 첫 대결에서 1-5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일본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0-4 패배까지 지금껏 카자흐스탄과 12번 맞붙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게다가 카자흐스탄은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출신의 귀화 선수 5명을 포함한 베스트 전력이었다.

지난해 월드컵피어십에서 강등된 카자

■ 한국 경기 일정(한국시간)

 VS 	25일 밤 11시	SBS 온에어, SBS 스포츠
 VS 	27일 새벽 2시30분	SBS 온에어, SBS 스포츠 (28일 오전 9시 30분)
 VS 	28일 새벽 2시 30분	SBS 온에어, SBS 스포츠

흐스탄은 지금까지 디비전 1에서 귀화 선수들을 출전시킨 적이 없다. 카자흐스탄이 디비전 1에서 패한 것은 4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홈팀인 헝가리에 1-2로 진 이후 처음이다.

한국 역시 귀화 선수 5명을 데리고 이번 대회에 임했으나 NHL에서 풀타임으로 뛰었던 카자흐스탄 귀화 선수와는 차원이

저리거 용병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카자흐스탄에 5-2의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수문장 맷 달튼의 신들린 선방이었다. 달튼은 유호 슈팅에서 한국이 21-32로 크게 뒤진 이날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의 슈팅 30개를 막아내고 승리를 뒷받침했다.

또 비시즌에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2년째 시행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은 1-2로 뒤져 패색이 짙던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 지친 카자흐스탄을 몰아붙여 4골을 퍼붓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키며 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이 커진 한국은 25일 밤 11시에 헝가리(19위)와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오승환 일주일에 5세이브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돌직구를 앞세워 시즌 5세이브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24일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 경기에서 팀이 6-3으로 앞선 9회말 무사 1루에서 구원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켰다. 18일 피츠버그전에서 뒤늦게 시즌 첫 세이브를 거둔 오승환은 일주일 동안 5경기 연속 세이브에 성공했다.

오승환은 6-3으로 앞선 9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자 에르난 페레스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도망고 산타나를 루킹 삼진 처리했다. 조너선 빌라에게 우익수 쪽 안타를 맞고 2점 차까지 쫓아내 1사 1·3루 추가실점 위기에서 KBO리그 출신 강타자 에릭 테임즈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 라이언 브라운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정현 단식 본선 올라 ATP 바르셀로나오픈

정현(97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오픈(총상금 232만 4905 유로) 단식 본선에 올랐다.

정현은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단식 예선 결승에서 기도 펠라(148위·아르헨티나)를 2-0(6-2 6-4)으로 제압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올해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본선에서 세 차례 승리를 거둔 정현은 이번 대회 본선 1회전에서 데니스 이스토민(72위·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한다. 이 스토민은 올해 호주오픈에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선수로 정현과는 2015년 데이비스컵에서 한 차례 맞붙어 이스토민이 기권승을 거뒀다. /연합뉴스